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19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폭염·가뭄 겪은 콩, 적기 수확·건조로 품질 지켜야-p107(2026.11.01.)	기술지원조정과	월간원예
○	양배추·브로콜리 검은무늬병·검은썩음병 주의-p108(2026.11.01.)	제주농업기술센터	월간원예
○	골드키위 감황, 최적 재배기술 개발 추진-9	과수연구과	제주매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교육-1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기고]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14면(이미숙)	제주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열다-3면	-	제주일보
○	잦은 가을비에 제주 콩밭 초토화-1면	-	제민일보
○	제주 농산물로 빚은 무알콜 와인 세계 시장 도전-3면	-	제민일보
○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투기는 특례 제외-12면	-	삼다일보
○	제주 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 호응…수급 관리 역할 '톡톡'-3면	-	한라일보
○	기본형 공익직불금 535억원 확정-4면	-	한라일보

(월간원예: 2026년 11월 1일)

○ 폭염・가뭄 겪은 콩, 적기 수확・건조로 품질 지켜야-p107

폭염·가뭄 겪은 콩, 적기 수확·건조로 품질 지켜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올해 가뭄과 폭염으로 콩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기 수확과 철저한 수확 후 관리를 당부했다. 제주지역은 7월 7일부터 40일간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고, 콩알이 차오르는 9월 1~25일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다.

7월 상순 이전에 파종한 재배지에서는 생육이 부진하고 꼬투리가 적게 달리거나 콩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 피해가 나타났다. 반면 7월 중순 이후 파종한 재배지는 8월 중순 비가 내린 뒤 생육이 회복돼 결실이 대체로 양호하다. 지난달 17일 기준 도내 콩 재배지의 95%가 잎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에 들어섰지만, 일찍 파종한 해안가 재배지를 중심으로 성숙기에도 잎과 줄기가 푸르게 남는 '녹체현상'이 확인됐다.

올해 콩 수확은 품종과 파종 시기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해찬'과 '풍산나물콩'은 지난달 하순부터, '아람'은 이달 상·중순에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한 콩은 충분히 말린 뒤 이물질과 불량 콩을 골라내야 하며, 기계 수확이 가능한 '해찬'과 '아람'도 첫 꼬투리가 낮게 달린 경우에는 손으로 수확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 비 예보가 이어질 때는 배수로를 정비해 자주무늬병과 미라병, 수발아 피해를 막아야 한다.

김태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일찍 심은 콩의 수확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제때 수확하고 관리해 품질을 지켜야 한다"며 "변화하는 기상 여건에 맞춰 파종 시기를 조정하고 우량 품종을 선택하는 등 적절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간원예
11월호 107

(월간원예: 2026년 11월 1일)

○ 양배추・브로콜리 검은무늬병・검은썩음병 주의-p108

양배추·브로콜리 검은무늬병·검은썩음병 주의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고온과 잦은 비로 양배추·브로콜리 병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배지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초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21.5℃로 평년보다 2.9℃ 높았고, 이후에도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이어졌다.

곰팡이병인 검은무늬병은 잎과 잎자루·줄기에 갈색이나 검은색의 둥근 반점을 만들고, 세균병인 검은썩음병은 잎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변한 부분이 잎맥을 따라 V자 모양으로 번진다. 두 병 모두 습도가 높고 잎이 오래 젖어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

병이 보이면 해당 작물과 병해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쓰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병든 포기는 제거해 확산을 줄여야 한다.



월간원예
11월호 108

(제주매일: 2026년 11월 19일)

○ 골드키위 감황, 최적 재배기술 개발 추진-9면

골드키위 감황, 최적 재배기술 개발 추진

농업기술원, 당도 등 분석 확대…2028년 생육관리 모델

골드키위 '감황'의 수확기 과실 크기가 생육 초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최적의 재배관리 기술 개발이 추진되면서 농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의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실크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육시기와 환경요인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가별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분석해 과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밝히고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생육관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애월과 성산지역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온도·습도·토양수분 등 재배환경 △과실 크기·당도 등 생육·품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수확기 과실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와 환경요인 분석에 중점을 뒀다. 분석 결과 만개 후 약 29일에 과실 비대 속도가 가장 빨랐고 약 40일에는 비대 속도가 크게 줄었다.

생육 초기 과실 크기와 수확기 과실 크기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확인됐다. 과실 비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불필요한 열매를 솎아 주는 등 초기 생육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개 후 약 10일간의 온도와 과실 크기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화 초기 시설 안의 저온 노출을 줄이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관리요인으로 분석됐다.

11. 19.
제주매일 9

(제민일보: 2026년 11월 19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교육-1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교육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최근 동부지역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교육과 안전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귤과 월동채소 수확기를 맞아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1. 19. 제민일보 13

(삼다일보: 2026년 11월 19일)

○ [기고]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14면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



이미숙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과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감귤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농업문화,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산업이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감귤과 월동채소, 아열대작목, 농촌관광을 포함한 농촌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다면 제주 농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제는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기술과 가공, 유통,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고 농업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 농업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과 땀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공익적 산업이다.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제주 농업의 미래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다. 변화에 도전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11. 19.
삼다일보 14

(제주일보: 2026년 11월 19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9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추진개요

△기간=11월 19일(목) ~ 11월 23일(월) / 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인원=6.5만 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주요프로그램

△공식행사=개막식, 폐막식, 술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학술·비즈니스=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경연행사=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문화·공연=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체험행사=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빅 이벤트=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입장권안내=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문의=(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064-762-309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064-732-3380)

11. 19.
제주일보 9

(삼다일보: 2026년 11월 19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19일(목)~23일(월)/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 인원=6만5000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문의=762-3091(㈔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732-3380(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11. 19.
삼다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11월 19일)

○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열다-3면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열다

어제 아라2동서 개소식…도내 기업 제품 보관·운송

제주지역 기업들의 제품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고, 공동 운송하는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18일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센터 운영을 통해 섬이란 지리적 여건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덜고, 이곳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제주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아라2동에 있는 센터에서 물류·이용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총사업비 258억원을 들여 연면적 56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도내 중소 제조기업과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법인·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저온창고 3곳에 400팔레트, 상온창고에 1400팔레트 등 총 1800팔레트 분량의 화물을 보관할 수 있다. 팔레트는 화물을 쌓아 지게차 등으로 운반할 때 쓰는 받침대다.

센터에는 보관·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창고 및 운송 관리 시스템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카카오모빌리티,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협력해 무인 지게차를 시범 도입하는 등 첨단 물류 자동화 기반도 마련됐다.

사무실과 회의실, 화물차 기사 휴게실 등도 갖춰졌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스마트 물류센터 4등급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향후 보관·운송에 더해 포장·배송·재고 관리까지 일괄 지원하는 물류 대행(풀필먼트)체계로 센터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 기업들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소량 화물의 보관·운송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센터가 이런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 운송 구간을 내륙 도로망과 같이 인정해 초과 물류비를 공적으로 보전하는 '거리등가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유한 기자

11.19
제주일보 3

(제민일보: 2026년 11월 19일)

○ 잦은 가을비에 제주 콩밭 초토화-1면

잦은 가을비에 제주 콩밭 초토화

곰팡이·수발아 전체 35% 피해

농가 손실 최대 54억원 추산

재해보험 가입률 48% 그쳐

농업재해 인정·비축매입 촉구

제주지역에 한 달 가까이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을 앞둔 콩에 곰팡이가 피고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차 조사에서만 전체 재배면적의 3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되면서 정부 차원의 농업재해 인정과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제주지역 콩 피해 면적은 1494ha로 전체 재배면적 4229ha의 35%에 달한다.

지역별 피해 비율은 한경 50%, 애월 46%, 한림·구좌 40%, 안덕·대정 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조사 이후에도 비가 이어지면서 농협 등 산지에서는 피해 면적이 최대 8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만 추가 피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11. 19.
제민일보 1

이날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안덕면 동광리 농가에 콩들이 곰팡이 피해를 입었다. 김영호 기자

리의 콩 재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확을 앞둔 콩깍지에 곰팡이가 피고, 콩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가 나타났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제주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21일에 달한다. 잦은 강우로 토양이 과습해지고 수확과 건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콩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그러나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껍질이 갈라진 콩은 정상적인 상품 출하가 어려워 농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평년 80~85% 수준이던 콩나물콩 수매 비율이 올해 4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품성이 낮아진 콩을 정부 비축용 일반콩으로 판매할 경우 40kg당 가격은 약 14만원으로 지난해 농협 평균 수매가격 22만원보다 8만원 낮아진다.

피해율이 50%에 달하면 농가 손실은 약 34억원, 80%까지 확대되면 5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낮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기준 도내 콩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2058ha로 전체 재배면적의 48.7%에 그쳤다.

이한열 제주안덕농협 조합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농가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과 비축 수매 확대 등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협제주본부도 정부와 제주도에 농업재해 인정과 재난지원금 지원, 정부 비축수매 물량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콩을 비롯해 녹두와 메밀 등 수확기 발작물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제민일보: 2026년 11월 19일)

○ 제주 농산물로 빚은 무알콜 와인 세계시장 도전-3면

'창업의 꿈'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로컬창업타운 체험점포에서 이룬다 ①

제주 농산물로 빚은 무알콜 와인 세계시장 도전

최석훈 720컴퍼니 대표

감귤·녹차·용암해수 등 활용
발효기술로 풍미·질감 살려
시음회 구매의향 95% 돌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와인처럼 특별한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을까.

제주지역 창업기업이 청정 제주 농산물과 발효기술을 결합한 프리미엄 무알콜 스파클링 음료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최석훈 대표가 이끄는 720컴퍼니는 제주 감귤과 녹차, 용암해수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페이트(FETE)'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 와인에서 알코올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3단계 저산 발효기술을 적용해 풍미와 질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최 대표는 2016년부터 10년 이상 발효식초와 발효음료를 연구하며 원료별 산도 조절과 숙성, 향미 및 블렌딩 기술을 축적해 왔다.

수백 차례의 블렌딩 테스트를 거쳐 제품 개발에 나섰으며, 미국 나파밸리의 이노바투스 와이너리(INNOVATUS Winery) 세실 박 대표와 공동으로 향과 맛, 바디감 등을 고도화했다.

페이트는 감귤과 풋귤, 하귤, 녹차 등을 활용한 발효 베이스에 차와 과일껍질의 콜드 인퓨전 기법을 더해 복합적인 과일·꽃·차 향을 구현한다.

인공 향료에 의존하지 않고 발효 원료 자체의 풍미를 살려 샴페인 스타일의 프리미엄 무알콜 음료를 지향한다.

제품 개발을 넘어 시장성 검증도 진행했다. 2026년 4월 국내 시음행사에 이어 6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구글과 엔비디아 임직원 등 현지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열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국내 시음행사에서는 소비자 구매의향 95% 이상, 풍미 만족도 92% 이상의 결과를 확인했다.

사업화 전략은 제주 특급호텔과 리조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이다.

웰컴드링크와 객실 미니바, 음식 페어링 음료, 웨딩 및 연회용 음료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이후 온라인 유통과 선물시장, 해외 프리미엄 음료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제주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비상품 감귤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안정적인 원료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제조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제주 로컬트랙 1기 선정자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 로컬트랙 1기에는 41개팀이 선정된 가운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주권역 주관기관을 맡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제주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로컬창업타운 체험점포를 통해 공유주방과 회의실, 스튜디오 등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전문가 멘토링 및 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며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석훈 대표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모두의 창업 지원'과 로컬창업타운 '체험점포' 내 공유주방을 활용한 시음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제주에서 축적한 발효기술과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비알코올 브랜드를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11. 19
제민일보 3

(삼다일보: 2026년 11월 19일)

○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투기는 특례 제외-12면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투기는 특례 제외

농식품부, 특정 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주 설명회…주요 내용·추진 방향 살펴보니



1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특정 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주지역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특정 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주지역 설명회를 열고 법안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다음은 Q&A로 정리한 주요 내용.

Q. 특별조치법은 어떤 농지에 적용되나?

A. ①농지법상 임대·자경을 위반한 농지 ②허가 없이 창고 등을 짓거나 전용한 농지 ③지목은 전·답인데 실제로는 산이나 도로·묘지인 농지 ④실제 적법한 데 장부에 잘못 적힌 농지 ⑤허가 없이 밭이나 과수원으로 일군 임야 등이 해당한다.

Q. 특기 목적 농지나 외지인 소유 농지도 해당되나?

A. 아니다. ①기준일 후 취득 농지(상속 농지는 제외) ②관외 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부정하게 농지 취득 후 불법 임대·무단 휴경하는 경우 ③관외 거주자 여러 명이 공유지분 형태로 거짓·부정하게 농지 취득 후 불법 임대·무단 휴경하는 경우 ④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Q. 아버지 명의 농지에서 별도 세대인 아들이 농사짓고 있다. 정식 임대차로 바꿀 수 있나?

A. 가능하다. 아버지가 기준일까지 취득한 농지이고 아들이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용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Q. 형제 사이에 농지를 빌려줬는데 계약서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확인 및 농지 대장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Q. 이웃 농업인에게 오래전부터 농사를 맡겨왔다. 이제 정식으로 임대해도 되나?

A. 가능하다. 개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의안의 핵심 특례 중 하나다. 다만 농지 취득시기와 특례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임대료 없이 농지를 빌려주고 있다. 돈을 받아야만 정식 계약이 되나?

A. 그렇지 않다. 법안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뿐 아니라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도 허용한다. 사용대차도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Q. 기존에 구두로 임대하기로 합의했는데, 특별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두면 되나?

A. 그렇지 않다. 특례에 따른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기존 구두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Q. 농지 전수조사 자료로 나중에 처벌하는 것 아닌가?

A. 발의안은 조사 자료를 특별법에 따른 업무, 특례 제외 사항에 대한 농지법 집행, 공부의 작성·정리, 농지 정책 수립·시행·평가 및 조사·연구·통계 작성 등의 범위에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11. 19.
삼다일보 12

(한라일보: 2026년 11월 19일)

○ 제주 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 호응…수급관리 역할 '톡톡' -3면

제주 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 호응… 수급관리 역할 '톡톡'

농산물 생산·유통부터 가격까지 통합정보 제공 이용 횟수 42만회 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 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횟수가 42만회를 넘어서는 등 농업 현장의 수급관리 도구로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은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11. 19.
한라일보 3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감귤 출하신고와 관련 기관 자료로 생산·유통 정보를 수집·분석해, 농업인과 관련 단체가 수급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은 감귤·당근·월동무·양배추·브로콜리·양파 등 제주 주요 농산물의 수급상황과 시장 변화를 누리집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제공되고 있다.

이 정보는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으로도 농가에 전달된다. 농가는 현장에서 남은 출하 물량을 예측하고 출하 시기와 물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센터는 기존에 문자 중심으로 당일 출하량·최고가·평균가 등 단순 정보를 전달했으나, 이제는 최근 3개년 처리계획량 대비 누계 출하량과 출하율까지 제공한다.

또한 센터가 공항·항만 출하신고소의 도외반출 물량(22개 품종)과 가공·군납·수출, 도내 택배업체 조사 물량 등을 직접 파악하면서, 생산예상량 대비 유통량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은 상품 크기별(2S·S·M·L·2L 등) 가격과 거래 반입 비율, 도매시장별 거래 동향, 국내 경쟁 과일(사과·배·단감·딸기·포도·수박·참외 등) 유통 동향, 오렌지·만다린 등 수입 감귤류 동향까지 더해, 감귤 출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밭작물 정보는 전국산과 제주산 가격·유통 동향 비교, 고가·중가·저가 등 가격대별 거래 동향, 산지 공판장·도매시장·소매 가격, 수출입 동향 등으로 제공 범위를 넓혔다. 내년부터는 월동무 출하신고를 시범 운영해 도외반출 물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급관리에 활용한다. 이후에는 출하신고 대상을 주요 밭작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한라일보: 2026년 11월 19일)

○ 기본형 공익직불금 535억원 확정-4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535억원 확정

면적 2만8700ha… 도, 12월까지 순차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535억 7000만원을 확정하고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농가별 신청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제주 소재 농지를 기준으로 총 3만 9900건(농가·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면적은 2만 8700ha다. 계좌 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은 경작 면적·소득·농촌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1만 5500농가로, 총 202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2만 4400명에게 총 333억 6000만원을 지급한다. 단위 면적(ha)당 지급 단가는 구간별로 2ha 이하 150만원, 2ha 초과~6ha 이하 143만원, 6ha 초과 136만원이다.

올해는 직불금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원 미만에서 47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급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제주도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자의 자격과 공익기능 증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외 소득 기준 초과, 사망 등의 사유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5명을 제외했다. 제주시 313명, 서귀포시 262명이다. 이태윤기자

11.19.
한라일보 4